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게 하옵소서

얼음 깨기

‘4월’

교회행사

4월이 되면, T.S.엘리엇의 ‘황무지’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 주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키워내듯, 우리의 메말라있는 삶에 봄비가 오고 꽃을 피우는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 당신의 삶의 메말라 있는 부분을 나눠보세요.
2. 당신에게 봄비와 라일락은 무엇일까요?

3월

- 3일 목장 모임 시작
성례식
- 17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종려 주일
- 24일 (성찬식)
- 25-30일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 31일 부활 주일

4월

- 7일 진공첫양육 2기 시작

경배 찬양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 분이 예수요

선교

[김민호 선교사]

베냉

1. 대통령이 흠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하도록
2. 코로나의 위협이 물러가도록
3. 베냉에 만연한 영적 혼합주의, 각종 이단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4. 매일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도록
5. 다하라 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교회 소식

1. **4월 신명기 말씀** 4월 신명기 말씀 목상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더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과정 2기**
 - 시작: 4월 7일 주간부터 12주
 - 내용: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3주), 풍성한 삶의 첫 걸음(5주), 더가족 세미나(4주)
 - 대상: 마을장, 목자 및 향존직(3기부터 전교인 대상)
 - 문의: 각 지역 담당 사역자
3. **저금통** 저금통을 나누어 드립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함께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 이번 주간 수요 말씀과 기도회는 우주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이민교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한문장 큰 울림

세상일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는 가능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더럽혀지고 또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침묵했어야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았어야 하는데’하고 나는 가끔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 16:10-13)

마가복음에 추가된 말씀 (1-20절)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활에 관한 기사가 축약되어 있으며, 1-8절과 9-20절로 내용이 나뉘어집니다. 대괄호가 있는 9-20절은 후대에 추가된 부분으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끝나는 8절 이후의 부분이 유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교회는 첨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1-20절까지를 마가복음 16장으로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9-13절)

1-8절은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9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가 전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남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 믿음 없음과 완악함(9-13절)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막16:14). 예수님이 꾸짖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 없음’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쉽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증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 남자 그것도 둘 이상의 증언만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과 여인들입니다. 증언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만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관습과 전통에 얽매어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유대사회에서는 신성모독자의 무리가 된 것이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역적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도, 두 제자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말씀을 기억하여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과 지상 명령(14-20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4-20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시고, 과정으로 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막16:20).

[나눔1] 예수님이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2] 당신은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나요?(부활에 뿌리 박은 삶의 방식) 더불어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